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리 험한 곳에서 헤매?"

열이면 열, 모두 고개를 가우뚱거린다. 한의사라는 번듯한 직업에 궁하지 않은 살림, 암전한 외모의 그를 거친 사각 링과 연결해서 생각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직 동양인으로는 유일하게 WBA 의무분과위원이자 세계에서 유일한 현직 한의사 복싱 국제 공인 심판, 이민영(한의학 76) 동문. 사람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던 그가, 거친 사내들이 링 아래서 서로의 몸매다 자신의 주먹을 확인하는 이 지독스러운 작업을 자신의 눈에 새겨 보기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 동문이 처음 복싱에 관심을 두게 된 시기는 1977년 권투열기가 한창 뜨거웠던 여름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J. 페더급 세계 타이틀전에서 카라스키야에게 4번이나 다운 당했던 홍수환 선수가 결국 상대방을 K.O시키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라고 외치던 날, 그는 흥분으로 인해 다른 일을 할 수 없었고 '나도 한번 해보자'는 욕심에 곧바로 학교 앞 헬스클럽에 등록해 버렸다. 그러나 한의대를 다니던 이 동문에 대한 주변의 높은 기대와, 권투열기만큼이나 곱지 않았던 사람들의 시선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 곧 단념한 그였지만 권투에 관한 열정은 때를 기다리며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 동문이 한의원을 열고 일에만 전념하고 있던 1991년도 무렵, 그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을 일이 일어났다. 한의원 앞에 들어선 복싱체육관에서 다시 권투를 하며 복싱경기의 TV중계나 즐기던 그가, '해비급 세계 타이틀전'의 당시 주심이 미국 연방 판사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이 동문은 다른 나라에서는 전문직 출신들이 주·부심으로 활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자신도 심판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한의원 진료시간 틈틈이 짬을 내며 시작한 공부, 그러나 이 동문은 곧 난관에 부딪혔다. 심판이 되는 과정이 시험 대신 대부분 '도제 수업' 같은 면이 많은데다, 당시 심판들의 대부분이 권투선수 출신들이라 공식시험은 한번도 치르지 않은 이 동문과 같은 경우에는 '따' 당하기 딱 좋은 경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꿈을 저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 온 그에게 기회는 찾아왔다. 95년 '범아시아복싱협회(PABA)'가 발족하면서 새로이 심판진 결성이 필요해진 것이다. 마침내 이 동문은 몇 년에 걸친 준비 끝에 99년 3월 정식으로 국제심판자격증을 획득했다. 그리고 그 해 8월 중국 심양에서 벌어진 남북대회에서 부심으로 참가해 첫 공식 데뷔전을 치렀다. 그렇게 시작한 '국제심판 이민영'은 벌써 PABA 타이틀전만 15번이나 넘게 치른 베테랑이 되어 있었다.

물론 그에게도 '심판'이라는 위치로 인한 갈등은 있었다. 그가 심판을 보기로 되어 있는 경기 전, 판정을 유리하게 해 주면 거액의 돈을 주겠다는 이들이 그를 여러 번 유혹하며 시험대 위로 올라서게 했다. 그것은 금권과의 싸움이라기보다 이 동문 자신과의 싸움이었으며, 그때마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자신이 복싱으로부터 얻은 순수한 열정, 기쁨을 돈과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서다.

이 동문은 "사각의 링 위에 서면 잃어버린 또 다른 나를 찾는 것 같다"며 복싱하는 즐거움을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우리나라 복싱계가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며 안타까워한다. 복싱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자면 그에 맞는 뛰어난 선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동문의 생각이다.

그의 꿈은 WBA세계 타이틀전과 같이 큰 경기에서 심판을 보는 것. 동양인이 그런 경기에서 심판을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언젠가 라스베가스 특설 링에서 주심을 보겠다."는 결심은 심판을 시작한 이래로 한번도 잊은 적 없는 그의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이 동문은 권투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자신이 참가한 때

경기마다 포스터며 입장권, 일기 등 관련 자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스크랩해서 파일로 정리해 놓고 틈날 때마다 추억을 되살리며, 언젠가 WBA 세계 타이틀전에 선 자신을 상상해 보는 일은 그에게 큰 즐거움이 됐다.

한의원 진료 시간을 화요일과 목요일만으로 제한한 것도 이 때문.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핑계 삼아 어느 하나에도 소홀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의 마음이다.

"저마다 한번쯤 가슴속에 품었던 꿈들을 현실의 벽에 묻어버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그 꿈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없을 지 몰라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청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남들은 한번에 한가지 일도 제대로 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일에 한푼의 치우침도 없이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이 동문. 그를 따라 다니는 수식어가 많은 것도, 그가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유도 바로 그의 이런 모습 때문이 아닐까.